

1910～20년대 일제 관학자의 朝鮮研究 : 黑板勝美, 鳥居龍藏, 今西龍을, 중심으로

鄭, 尚雨
서울대학교 : 講師

<https://doi.org/10.15017/2198506>

出版情報 :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8, pp.9-25, 2008-03-28. 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
Kyushu University
バージョン :
権利関係 :

1910~20년대 일제 관학자의 朝鮮研究

— 黑板勝美, 鳥居龍藏, 今西龍을 중심으로 —

鄭尚雨 (서울大學校 講師)

1. 序 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개항을 강요하고 이들 국가를 식민지로 삼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통치의 정당성을 ‘人種’的 우월성에서 찾는 것은 일반적인 양상이었으며, 원활한 식민통치를 위하여 역사학, 인류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이 이에 동원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뒤늦게 제국주의화한 일본 역시 19세기 후반 이래 한국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며, 한국과의 近親性を 강조하기도 하고, 한국사회를 낙후된 야만의 사회로 바라보기도 하는 등 한국에 대한 왜곡된 像을 그려갔다.

일제는 강점 이후 통치정책의 입안과 지배의 합리화를 위해 한국의 인종과 역사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서구 제국주의 국가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人種’的 우월성이 아닌 近親性に 착목하여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며, 강점을 과거의 ‘復歸’라고 선전하는 것이었다. 近親性を 강조하는 한편에서 한국사회는 停滯되고 他律的인 것이기 때문에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논의 역시 전개하였으며, 그러한 원인을 한국의 역사적 과정에서 구하고자 하였다.

일제 관학자들에 의해 전개된 역사 왜곡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방향에서 이루어 졌다. 하나는 이들 연구의 허구성을 밝혀 한국사 역시 繼起的으로 발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해방 이후 1960년대 들어 본격화된 ‘植民史學’에 대한 정리와 청산작업은 ‘日鮮同祖論’, ‘停滯性論’, ‘他律性論’, ‘事大主義論’ 등의 용어로 정리되었으며, 역사교육의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도 연구되고 있다. 당시의 주요한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결과를 살피며 그 입론이 他律性和 停滯性이라는 대전제 하에 서있다는 연구 이래,¹⁾ 각각 개별 논의와 연구자·연구기관들에 대한 극복 노력·고찰과 아울러 한국사의 시기구분을 통하여 繼起的 발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²⁾ 또한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문제시되면서 일본인들의 韓國觀 형성에 일조한 일제 관학자들의 韓國史像에 대한 재고찰 역시 진행되고 있다.³⁾

한편 이러한 연구경향과는 달리 일제 관학자들의 연구가 당시 총독부의 통치기조인 同化政策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었는가 혹은 근대 ‘日本人’의 형성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전반의 일본인 학자들의 위상은 무엇이었는가를 고찰하는 연구 역시 진행되었다.⁴⁾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당시의 논의들의 문제점과 허구성이 밝혀졌으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알려

1) 金容燮, 「日本·韓國에 있어서 韓國史敍述」, 『歷史學報』 31, 1966.

2) 洪以燮, 「植民地의 史觀의 克復」, 『亞細亞』, 1969. 3; 金龍範, 「韓國史의 他律性論 批判」, 同上書; 李基白, 「事大主義論의 問題點」, 同上書; 金泳鎬, 「韓國史 停滯性論의 克復의 方向」, 同上書; 李萬烈, 「日帝官學者들의 植民主義史觀」, 『韓國近代歷史學의 理解』, 1981, 文學과 知性社; 李萬烈, 「古代韓日關係論의 檢討」, 同上書; 崔在錫, 「今西龍의 韓國古代史論批判」, 『韓國學報』 46, 1987; 崔在錫, 「日本古代國家研究 - 百濟와 大和倭와의 關係」, 『韓國學報』 55, 1989; 崔在錫, 「津田左右吉의 日本古代史論批判」, 『民族文化研究』 23, 1990; 崔在錫, 「任那 歪曲史 批判 - 지난 150년간의 대표적 日本史學者들의 지명 왜곡 비정을 중심으로」, 『겨레문화』 6, 1992; 金光林, 「日鮮同祖論 - 其의 實體와 歷史의 展開」, 東京大 博士學位論文, 1998; 朴杰淳, 「喜田貞吉의 韓國觀 비판」, 『國史館論叢』 100, 2002; 朴杰淳, 『식민지 시기의 역사학과 역사인식』, 경인문화사, 2004; 韓國經濟史學會 編, 『韓國史時代區分論』, 1970, 乙酉文化社.

3) 李萬烈, 「近現代 韓日關係研究史 - 日本人의 韓國史研究를 中心으로」,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4,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4) 崔錫榮, 『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의 창출』, 서경문화사, 1997; 崔錫榮, 『일제하 무속론과 식민지권력』, 서경문화사, 1999; 小原英二 著, 趙현설 譯, 『단일민족신화의 기원』, 소명출판, 2003.(일본에서는 1995년에 출판.)

졌다. 일제 관학자들 사이에도 조금씩 다른 견해를 띄고 있음은 물론 서로의 견해를 반박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바로 그들의 연구가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점이라는 것이다. 특히 ‘日鮮同祖論’⁵⁾에 대해 일본의 국사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적극적인 찬동과 지지를 보내는 반면 동양사학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⁶⁾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문제의식과 성과를 계승하며 서로 대립·반발하던 일제 관학자들의 논의과정을 1910~20년대 黑板勝美, 鳥居龍藏, 今西龍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들이 그리고 있던 韓國觀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910~20년대의 시기에 집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자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먼저 일본학계와의 연관성 문제이다. 일본이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오래된 것이지만 개항 이후 한국에 대한 관심은 더해졌으며, 이는 이른바 ‘근대학문’이라는 틀 속에서 새로운 모습을 띄게 된다. 1910년 ‘강점’은 이들에게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한국에 대한 출입과 답사가 한결 자유로워지고, 朝鮮總督府의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인 학자들은 이전 자신들의 연구를 수정·강화시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1910~20년대 연구결과물들은 그 이전 일본학계의 지형과 비교하며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1931년 ‘만주사변’의 발발은 일본 제국주의의 전개에 획기를 이루는 사건으로, 이후 일본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상하고 전쟁을 확대해 나간다.⁷⁾ 이러한 가운데 한국에 대한 연구는 ‘滿鮮史’라는 이름아래 재편성되며 새로운 모습을 띄게 된다.⁸⁾ 때문에 1910~20년대 일본학자들의 한국에 대한 연구는 이후 시기와의 차이를 보이며, 별도의 고찰을 요하는 대상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강점 이후인 1910~20년대 일본인 학자들의 연구에 대해 黑板勝美, 鳥居龍藏, 今西龍 3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3인은 1916년 總督府에 의해 ‘古蹟 및 遺物保存規則’이 발표되고 ‘古蹟調査委員會’가 결성되기 이전부터 朝鮮總督府 學務局編輯課 囑託으로 韓國에 대한 답사를 시작하였으며, 1916년 이후에도 古蹟調査委員이 되어 한동안 한국에 대한 몇 차례의 답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朝鮮史編修會員나 京城帝國大學 教授 등으로 재직하며 답사활동과 아울러 한국사와 인종에 관련한 강연활동, 논문발표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전공이 국사학, 인류학, 동양사학으로 상이했지만 한국을 식민지로 영유하는 가운데, 실제로 답사를 수행하고, 관료나 교수, 연구자로서 한국에 부임해 연구활동을 전개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높다.

한편 이들이 답사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1916년 이전의 경우 답사보고서는 거의 남아있지 않아 연구의 공백상태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당시 이들의 답사를 말해주는 단서는 여기저기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들이 답사 이후 발표한 글들과 한국의 인종, 역사에 관련하여 1910~20년대 발표한 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이들 세 학자의 역사상을 조명하고, 이들

5) 당시 韓日의 근친성을 부각하는 용어로는 ‘日鮮同源論’, ‘日鮮同域論’, ‘日鮮同種論’ 등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인종적·지역적·언어적으로 근원이 같음을 말한다는 의미에서는 ‘日鮮同源論’이 가장 적당하지만 본고에서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日鮮同祖論’으로 표기하겠다.

6) 이에 대해서는 李萬烈, 앞의 논문, 2005; 崔錫榮, 앞의 책, 1997, pp.313~331; 三ツ井田崇, 「‘日鮮同源論’의 학문적 기반에 관한 시론 - 한국병합 전후를 중심으로」, 『韓國文化』 33, 2004, 서울F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를 참고할 것.

7) 1930년대 후반 전쟁의 확대와 동화정책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권태익, 「同化政策論」, 『歷史學報』 172, 2001을 참고.

8) 旗田巍, 「日本における東洋史學の傳棟」, 『歷史學研究』 270, 1962. 여기서 그는 ‘너무나 안이하게 滿鮮史의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滿洲史’와 관련해서는 井上直樹, 「近代 日本의 高句麗史 研究 - ‘滿鮮史’·‘滿洲史’와 關聯해서」, 『高句麗研究』 18, 2004가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滿鮮史’라는 용어가 정확히 언제, 누구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08년 滿鮮歷史地理調査部가 설치된 계기가 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滿鮮史’를 적극적으로 이론화하고자 했던 사람은 稻葉岩吉로서, 그가 1922년에 발표한 「滿鮮不可分の史的考察」이 그러한 시도를 한 첫 논문이라고 한다.

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이었는가를 고찰하여,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학자들이 그려낸 韓國像을 조망할 수 있는 단초를 구하고자 한다.

2. 강점이전 ‘日鮮同祖論’을 둘러싼 일본 학계의 논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에도시대부터 존재해왔다. 특히 實證을 중요시하는 考證學者들은 한일의 오래된 관련성에 주목하여 古事記와 日本書紀 등을 바탕으로 일본의 문화는 한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논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新井白石과 藤貞幹을 들 수 있다. 藤貞幹은 『衝口發』(1781)을 저술하여, 고대 일본문화에 나타나는 한국적 요소에 주목하며 그 영향을 중요시한데 대하여 國學者 本居宣長은 藤貞幹의 논의를 ‘狂人の 말’로 치부하며 『鉗狂人』(1785)을 저술하여 일본사와 문화의 고유성과 신성함을 주장하였다.⁹⁾

일본은 明治維新 이후 각종 제도·문물의 근대화와 함께 근대적 학문을 수용했다. 특히 1877년 제국대학의 설립으로 근대 학문의 토대가 구축되었다. 당시 한국은 일본 조야의 관심거리였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기원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연구하였다. 특히 ‘日鮮同祖論’(이하 따옴표 생략)이 제기되며 한일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각하였다. 잘 알려져 있듯이 1890년 제국대학 국사학과 교수였던 重野安繹, 久米武邦, 星野恒 3인은 근대 실증사학의 방법론으로 『國史眼』을 저술한 것 이외에도 많은 사학가들은 『古事記』와 『日本書紀』(이하 記紀로 표시)를 자료로서 분석하여 素盞鳴尊의 韓國 통치하였으며, 稻永命의 신라 왕위 등극과 아들 天日槍의 일본 귀복, 神功皇后의 신라정벌 등의 내용을 서술하였다.

星野恒이 강점과 동시에 정리하듯이 강점이전 日鮮同祖論을 주장한 학자들의 근거는 記紀의 신화를 바탕으로 하여 ①素盞鳴尊이 韓地에坐한 것, ②五十猛命이 韓地에서 日本으로 건너온 것, ③忍穗耳尊이 新羅로부터 渡來해 왔다는 전설, ④稻飯命이 新良國主에서 出給했다는 것¹⁰⁾ 4가지이다. 이들이 위와 같은 주장은 한국은 일본의 ‘舊國이어서 言語와 風俗이 동일하였기 때문에 服從은 빠르고 오래되었’으며, 일본이 ‘任那의 日本府를 필두로 新羅·任那·加羅·秦韓(辰韓)·慕韓(馬韓) 諸國을 統治’하여 ‘日韓同域이었던 증거는 顯然한다.’¹¹⁾는 한국에 대한 멸시관과 일본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하였다.

한일의 밀접한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明治 初期 일본에 온 Morse, Baelz, Aston, Chamberlain 등의 서구인에 의해서도 이루어 졌다. 이들은 ‘人種’의 개념과 考古學·人類學的 연구방법을 일본에 도입하며 일본은 여러 인종으로 구성되었고, 그 가운데 한국을 통해 들어온 인종도 있다는 논의를 전개하였다.¹²⁾ 서구인들의 연구와 함께 18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인 학자들이 일본 인종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1884년 당시 제국대학 이과대학 생물학 생도였던 坪井正五郎, 白井光太郎 등 10여 명이 ‘人類學の友’(이후 1886년에 일본 인류학회가 됨)를 조직하고, 일본인의 기원을 탐색하면서 일본에 있는 석기시대 유물에 대한 논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본학자들은 통일된 견해는 아니지만, 일본에 선주민이 있었고 후에 일본에 새로운 인종이 와 석기시대인(아이누)을 정복하여 일본인의 선조가 되었다는 日本人後來說, 混合民族說에 동의하게 되었다.¹³⁾ 이렇듯 선주민의 존재를 인정 한 가운데 인류학자들은 일본민족은 한국을 통해 건너온 대륙계, 남방에서 도래한 말레이계, 그리고 재래의 아이누계 등의 혼합이라는 것에 동의하게 된다.¹⁴⁾ 이와 같이 일

9) 金光林, 앞의 논문, pp.18~32.

10) 星野恒, 「歴史より觀たる日韓同域の復古と確定」, 『歴史地理 朝鮮號』, pp.22~30, 1910, 日本歴史地理學會, 三省堂書店.

11) 星野恒, 위의 논문, pp.33~35.

12) Peter Duus, 『The Abacus and The Sword』, 1995,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414.

13) 이를 ‘コロボックル・アイヌ 論争’이라고 한다. 이는 明治期 일본인류학·고고학계의 최대 쟁점이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金光林, 앞의 논문, pp.40~42를 참고할 것.

14) 小熊英二 著, 조현철 譯, 앞의 책, p.106.

본의 민족 가운데는 한국에서 유입한 종족이 있다고 보는 한편에서 한국에 대한 개략적인 답사를 통해 한국의 석기는 ‘磨製石器’로, 일본의 석기를 ‘打製石器’로 보는 일종의 계통론을 세웠다.¹⁵⁾ 이는 일본의 역사가 한국보다 유구하다는 것을 암암리에 전제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日鮮同祖論이 이와 같이 전개되는 한편에서 이에 반대하는 연구 역시 진행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일본은 ‘萬世一系’의 천황의 후손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단일민족이라는 것에서 일본의 특징과 ‘國體’를 찾았으며, 白鳥庫吉, 池内宏, 今西龍, 津田左右吉, 稻葉岩吉 등 東京帝大 출신의 동양사학자들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일선동조론에 비판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일선동조론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타율적인 측면에 두고 있었다고 한다.¹⁶⁾

1892년 서구의 방법론으로는 최초로 林泰輔가 『朝鮮史』를 간행한 이래¹⁷⁾ ‘東洋史’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那珂通世¹⁸⁾ 등은 19세기 말부터 한국의 고대사를 연구하였다. 이들 초기 한국사 연구가 일선동조론에 대해 명백하게 贊反을 표방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일본의 신격과 檀君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牽強에 가깝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그만 둔다’¹⁹⁾고 하거나, ‘檀君 傳説은 佛法이 東流한 후 僧徒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朝鮮의 古傳이 아닌 것은 한 번만 보아도 분명하다’²⁰⁾라고 하면서 日鮮同祖論 類의 논의와는 선을 긋고 있다.

이러한 類의 논의 역시 제국대학 설립 이후 선명해진다. 이들은, 記紀는 언어가 생긴 이후에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記紀를 통해 일본민족의 기원을 찾는 것에 반대한다.²¹⁾ 이러한 태도는 강점 이전 記紀를 통해 日鮮同祖를 주장하던 논의와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특히 일본 동양사학의 개척자로 평가되는 白鳥庫吉은 유럽에서 유학한 이후 지리결정론에 가까운 입장을 보이며 일본에 대해 북방처럼 춥지도 않고 남방처럼 덥지도 않은 ‘島國’으로 지리적 독특성을 지니며, 이에 근거하여 국가를 세운 것은 ‘一系不易의 皇室’을 받들며 ‘言語, 風俗 등에서 크게 차이가 없’어 강고한 사회결합을 이룰 수 있는 大和民族으로 일본은 아이누를 제외하면 강고한 단일민족이라는 주장한다.²²⁾ 이와 같이 일본을 단일민족으로 설정할 경우 일본과 비슷한 민족이 다른 곳에도 존재한다는 日鮮同祖論과 같은 논의는 성립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日王을 중심으로 국가를 재편하고 한국과 같은 주변으로 甍창을 꾀하던 당시, ‘萬世一系の 天皇’의 존재를 통해 일본의 독자성을 주장한 白鳥庫吉과 같은 이들은 역사를 통해 이를 합리화하고자 했다.²³⁾ 이때 그는 任那日本府를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1907년 그는 한 강연에서 素戔鳴尊과 天日槍 등이 한국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傳説’로 역사적으로 단언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다.

15) 인류학자 八木柴三郎은 東京帝國大學 주관으로 1900년 12월에는 開城과 平壤 부근을, 1901년 1월에는 京畿, 江原, 忠淸, 全羅, 慶尙道 지역을 답사하였으며, (『沿途各郡案』光武四年十二月一日, 『沿途各郡案』光武五年一月七日) 그 결과 이러한 석기시대 계통론을 수립하였다.

16) 崔錫榮, 앞의 책, 1997, pp.327~331. 한편 동양사학자인 白鳥庫吉과 津田左右吉의 일본민족론과 일선동조론에 대해서는 小熊英二 著, 趙현설 譯, 앞의 책, pp.352~383을 참고할 것.

17) 林泰輔가 저술한 『朝鮮史』에 나타난 韓國觀에 대해서는 崔在錫, 「1892년의 林泰輔의 『朝鮮史』 비판」, 『先史와 古代』 18, 2002 참고.

18) 江上波夫 編, 『東洋學の系譜』, 1992, 大修館書店, p.2.

19) 林泰輔, 『朝鮮史』卷之一, 1892, p.58, p.82. 한편 崔在錫, 앞의 논문(2002)에서는 이 부분을 인용하여 林泰輔가 단군과 일본의 신화를 연결시켰다고 보는데, 林泰輔는 ‘或人’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해 檀君과 일본신화를 연결시키는 것을 소개하고, 文尾에 ‘이것 역시 牽強에 가깝다. 잠시 덧붙여 참고를 제공한다’라고 하고 있다.

20) 那珂通世, 『朝鮮古史考』, 『史學雜史』 5-4, 1894, p.37.

21) 白鳥庫吉, 「日本人種論に對する批評」, 『東亞之光』 10-8, 1915, 8.(여기서는 1971년에 발간된 『白鳥庫吉全集』 9, pp.189~200에 실려 있는 판본을 참고하였다.)

22) 白鳥庫吉, 「我が國の強盛となりし史的原因に就て」, 『世界』 1, 1904.(『白鳥庫吉全集』 9, pp.162~166.)

23) 이러한 단적인 예로 白鳥庫吉은 1900년 전후 동아시아 속에서 일본의 정세와 나아갈 바를 광개토태왕 비문을 통해 읽어낸다. 이에 대해서는 李成市, 『만들어진 고대』, 2001, pp.21~24를 참고.

그렇지만 한일간의 ‘交通’은 존재하였으며, 이미 4세기 초 神功皇后가 신라를 평정하였고 ‘朝鮮의 南方’인 ‘任那’에 하나의 權力을 세운 것은 틀림없다고 보고 있었다.²⁴⁾ 일본의 단일민족설과 任那日本府에 대한 확신 속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위와 한일의 (‘混化’가 아닌) ‘交通’을 주장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강점 직후 강화된다. 강점 2개월 후 발표한 글에서 白鳥庫吉은 記紀에 素戔鳴尊이 신라의 曾戶茂梨에 가서 한국을 통치했다는 것을 바탕으로 일본이 태고 이래 한국을 경영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日本書紀에 근거하여 고구려가 일본에 降參해 왔다는 것 역시 오류이고, 고대 일본이 한국에 세력을 수립한 것은 任那로, 이를 중심으로 백제와 신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²⁵⁾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에도시대 이래 존재했던 한국에 대한 관심은 ‘근대학문’의 외피 속에서 재현되었다. 이는 記紀의 신화, 한일의 인종적 유사성과 석기 등의 유물을 소재로 전개된 것이었다. 특히 記紀의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서 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인종적 관계를 보는 시각은 판이해진다. 그렇지만 제국대학 교수이자 대표적인 日鮮同祖論者였던 久米武邦의 필화사건 이후 日鮮同祖를 주장하는 글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²⁶⁾ 1910년 강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렇지만 일본의 학자들은 日鮮同祖論에 대해 찬반여부를 떠나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위, 일본사의 유구성이라는 공통항을 가지고 있었다.

3. 강점이후의 논의 양상 - 黑板勝美, 鳥居龍藏, 今西龍을 중심으로

강점을 계기로 日鮮同祖論은 대대적으로 선전된다. 강점 이전 日鮮同祖論을 주장한 학자들이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맺기 시작한 최초의 사건으로 꼽고 있는 것은 素戔鳴尊의 新羅降臨이다. 이러한 주장은 日本書紀一書 ‘素戔鳴尊이 아들 五十猛神을 거느리고 新羅國에 내려와 曾戶茂梨(소시모리, ソシモリ)에 居다했’는 구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소시모리’는 한국어 ‘소의 머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素戔鳴尊의 강림지 ‘ソシモリ’는 조선의 牛頭城이며, 그 위치로는 춘천을 가장 유력하게 꼽았다. 이러한 논의는 강점 이후에도 반복된다.²⁷⁾ 또한 素戔鳴尊이 조선과 관련이 깊다는 논의를 넘어서서 素戔鳴尊이 檀君과 同一神이라는 논의도 전개되었다.²⁸⁾

강점으로 한국에 대한 출입과 답사가 자유로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朝鮮總督府의 주도로 답사가 진행되면서 일본 학자들의 한국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총독부에서 주도하던 답사는 대학에서 이른바 ‘근대학문’의 방법을 훈련받은 이들에 의해 전개되었다. 朝鮮總督府 學務局 編輯課에는 課長으로 동양사를 전공한 小田省吾가 부임하였으며, 교과서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에 대한 답사를 주도하

24) 白鳥庫吉, 『韓史概説』, 『叡山講演集』, 1907. (『白鳥庫吉』 9, pp.300~301.)

25) 白鳥庫吉, 『我が上古に於ける韓半島の勢力を論ず』, 『中央公論』 25-10, 1910. (『白鳥庫吉全集』 9, pp.332~336. 또한 白鳥庫吉은 강점직후 다른 민족에 대한 同化는 일본인이 처음하는 ‘經驗’이지만 일본인의 뛰어난 국민성으로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고 하며 日鮮同祖論에 기반한 同化政策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白鳥庫吉, 『日本は果して朝鮮を感化し得べきか』, 『教育時論』 915, 1910. (『近代日本のアジア教育認識 - 資料編』 1, pp.187~191. 龍溪書舎.)

26) 久米武邦의 필화사건에 대해서는 三ツ井崇, 앞의 논문, pp.253~256 참조.

27) 이러한 논의를 펼치는 논의의 예로는 吉田東伍, 『日韓古史斷』, pp.32~36 및 久米武邦, 『合併にあらず復古なり』, 『經濟』 14, 1910 등을 들 수 있다.

28) 당시 강점을 전후하여 한국에서도 神宮奉敬會라는 단체가 조직되어 檀君과 天照大神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궁을 만들어 祀해야 한다는 논의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神道家를 필두로 한 종교가들의 주장으로 보이는 이러한 사태는 1925년 朝鮮神宮 완성 후 祭神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檀君을 선택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재현되었다. 조선신궁의 제신문제에 대해서는 保坂祐二, 『日本帝國主義의 民族同化政策分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pp.129~131 참고. 素戔鳴尊·檀君 동일설은 종교가들의 논의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阿部辰之助는 1928년에 저술한 『新撰日鮮太古史』에서 素戔鳴尊과 檀君이 동일 인물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는 과거 한반도의 남부와 일본이 육지로 연결되었을 당시 이곳에 살고 있는 이들이 原日本人이며, 단군이 일본에 농업을 전수하기 위하여 일본에 와 수사(須佐)에 살았기 때문에 ‘須左之男命’(=素戔鳴尊)이라고 불렸으며, 이러한 이유로 檀君의 墳墓는 한국에 없고 일본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阿部辰之助, 『新撰日鮮太古史』, 大陸調査會, 1928, pp.28~29.)

였다. 이에 참여한 것이 아래에서 주목하는 黑板勝美(1874~1946), 鳥居龍藏(1870~1952), 今西龍(1875~1932)이었다.²⁹⁾ 이들은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지만 강점 이후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직접 와 활동을 전개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은 높다. 더군다나 이들의 나이와 수학과정을 생각해볼 때 이들은 초기의 학자들에 비해 많게는 20여년 적어도 10년은 연하로서 근대적인 학제를 거쳤거나, 東京帝國大學에서 이른바 ‘근대학문’의 세례를 받은 이들이었다. 과연 강점 이후 1910~20년대 한국답사를 하기도 하고 강연 및 논문저술을 통해 한국에 대해 어떠한 像을 그리고 있었던 것일까?

1) 민족이동에 의한 ‘日鮮同祖論’

1911년부터 시작된 학무국 편집과 주도의 답사에 東京帝國大學 국사학과에 소속되었던 黑板勝美는 1915년 囑託으로서 한국에 대한 답사를 진행하였으며, 1916년 古蹟調査委員會 결성 이후에도 한 차례 더 답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답사 이전인 강점 당시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강점 직후 발표한 「偶語」에서 그 답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그는 일본인은 다른 국민에게 없는 善美한 國民性情을 가지고 있어서 臺灣人이나 朝鮮人과 같게 볼 수 없다고 전제한다. 일본은 ‘島國’으로서 외국의 압박을 받은 경험이 적고 오랫동안 보존되어 국민의 단결이 강한데다가 天祖大神 이래 万世一系の 皇室을 받들었기 때문이다.³⁰⁾ 한편 태고 한일의 관계를 말함에 있어 記紀를 보고 素戔鳴尊이 新羅에 갔다거나, 檀君을 들먹인다거나 하는 것은 수궁하기 어렵다고 단언한다. 그렇지만 그가 고대 한일의 근친성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고대 한일의 밀접한 관계를 ‘日韓文明同域說’이라고 표현한다. 즉 같은 종족이 같은 문명·풍속·언어를 가지고 割據하고 있었으며, 그 지역은 한국 남부부터 對馬島, 九州, 山陰 등지에 걸치며, 이는 양지의 ‘交通’을 말해주는 전설들에 의해 알 수 있다는 것이다.³¹⁾

즉 黑板勝美는 ‘島國’, ‘天皇’과 같은 일본과 일본인만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한일의 관계를 ‘交通’으로 표시하였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交通’ 이상의 것들 - 종족, 문명, 풍속, 언어 등의 동일성을 이야기하며 한일을 함께 묶어 文明의 同域을 이야기한다. 이는 한일 두 지역을 포괄하여 하나로 보려는 태도라고 하겠다. 그러나 記紀에 근거한 日鮮同祖論에 대해서는 확고한 거부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그가 학무국 囑託, 古蹟調査委員으로 한국답사를 진행함과 아울러 강연과 몇 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당시 그의 답사지와 시기를 보면 아래와 같다.

<黑板勝美의 한국 답사>

| 회차 | 일시 | 답사지 |
|----|---------------------|--------------------------------|
| 1 | 1915년 5~7월 (90여일) | 낙동강, 섬진강, 금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南鮮’지역 |
| 2 | 1916년 8월 23일~9월 11일 |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 황해도 일대 |

* 1차 답사는 학무국 囑託으로, 2차 답사는 古蹟調査委員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표는 신문자료와 남아있는 답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29) 藤田亮策, 「朝鮮の古蹟調査と保存の沿革」, 『朝鮮總攬』, 1933, 朝鮮總督府, p.1031.

한편 地方局 第1課에서도 답사를 주도하였는데, 이를 수행한 것은 건축학을 전공한 공학박사이자 東京帝國大學 助教授였던 關野貞이었다. 1916년까지 關野貞의 고적조사에 대해서는 高橋潔, 「關野貞を中心とした朝鮮古蹟調査行程 - 1909年~1915年」, 『考古學史研究』 9, 2001, 京都 木曜クラブ 및 정인성, 「關野貞의 낙랑유적 조사. 연구 재검토 - 일제강점기 ‘古蹟調査’의 기억1」, 『湖南考古學報』 24, 2006을 참고할 것.

30) 黑板勝美, 「偶語」, 『歴史地理 朝鮮號』, p.154, p.159. 1910, 日本歴史地理學會, 三省堂書店.

31) 黑板勝美, 위의 논문, pp.155~157.

黑板勝美의 답사보고서는 1차는 남아있지 않고 2차만 남아있다.³²⁾ 그렇지만 1차 답사 직후인 1915년 7월 29일부터 『每日申報』에 「南鮮史蹟의 踏査」라는 제목으로 16회에 걸쳐 답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가 이렇게 답사지역을 이렇게 선택한 데에는 한국은 지역의 풍토와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충청, 전라, 경상도를 포함하는 ‘南朝鮮’과 그 북쪽은 서로 다르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³³⁾ 1차 답사의 경우 주된 관심은 일본의 유적과 비슷한 것을 찾아 日本府의 실체를 밝히는 것에 집중되었다.³⁴⁾ 그가 주로 답사한 것은 古墳과 그에 딸린 유물들이었는데, 일본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地形, 地勢, 交通관계에 의하여 日本府의 위치를 金海 泗村面에서 咸安邑內로 이동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었다.³⁵⁾ 黑板이 이 답사에서 한일의 관계와 관련하여 발견한 유물은 忠州지역에서 본 佛像이 유일했다. 그는 佛像 光背의 銘文을 통해 이것이 백제의 것이라고 추정하고, 銘文을 비롯한 佛像의 양식이 일본 飛鳥시대의 것과 매우 유사함을 들어 백제와 일본의 밀접한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1차 답사를 종결하였다.³⁶⁾ 그는 1차 답사 이후 ‘朝鮮 南의 歴史가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였는가 알고 싶어 다양한 조사를 하여 河川文明의 方面에서 任那, 百濟 문명을 관찰해 보았지만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³⁷⁾고 회고하는데, 이를 통해 답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日本府에 관한 유적이 발견되지 않는 것에 대해, 그는 다만 ‘今後에 多數한 材料를 發見됨을 從하여 上代文化의 蹟이 闡明될 時期가 有할줄 信하는 바³⁸⁾라며 바랄 뿐이었다.

2차 답사의 목적은 대동강을 중심으로 漢民族 分布 狀態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³⁹⁾ 그는 답사 이후 「大同江附近의 史蹟」이라는 강연을 통해 답사의 감상과 결과를 알렸다. 여기서 그는 ‘조선에서 河川의 平原에서 가장 먼저 文明이 發達한 곳은 大同江이었다고 하며, 그 근거로 箕子의 ‘傳說’을 거론하며 글을 시작한다.⁴⁰⁾ 이후 그는 대동강 유역인 平壤, 平原郡, 順天郡, 龍岡郡 일대까지 樂浪郡 유적이 광범하게 존재하며, 이는 최초로 ‘支那’ 문명에 유입된 것이라고 결론짓는다.⁴¹⁾ 黑板勝美의 이러한 설명은 한국사의 범위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대폭 축소하는 것이었으며, 민족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된다. 그는 중국측으로부터 민족의 유입에 따라 종래 평양부근에 있던 민족이 이동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한국사의 출발점이라고 결론지으며 글을 마치고 있다.⁴²⁾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日本府에 대해 신념에 기댄 채, 한국사의 시작을 중국으로부터의 민족의 이입에서 찾은 黑板勝美는 1918년 『國史의 研究』를 저술하여 자신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였다. 답사를 통해서도 실체를 찾을 수 없었던 任那日本府에 대해서는 다만 ‘任那에 官府를 두어...欽明天皇 御代에 任那府가 망하고 天智天皇이 韓土를 放棄하였고, 이후 外交的關係에 그쳤다’거나 혹은 新羅가 唐을 끌어들여 ‘任那官府’가 滅하였고 ‘朝鮮을 放棄했다’ 정도의 언급만을 하고 있다.⁴³⁾

반면 일본사의 범위나 역사학의 방법을 이야기하면서도 태고 한일의 관계에 대해 많은 언급을 했다. 우선

32) 學務局 囑託으로서 진행한 답사에 대한 보고서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반면 古蹟調査委員으로 진행한 답사는 보고서 제출이 의무적이었기 때문에 남아있다. 이는 이후 살펴볼 烏居龍藏, 今西龍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33) 黑板勝美, 「南鮮史蹟의 踏査」(1), 『每日申報』, 1915. 7. 29. 1면.

34) 黑板勝美, 「南鮮史蹟의 踏査」(6), 『每日申報』, 1915. 8. 6. 1면.

35) 黑板勝美, 「南鮮史蹟의 踏査」(7)~(9), 『每日申報』, 1915. 8. 7~10. 1면.

36) 黑板勝美, 「南鮮史蹟의 踏査」(13), 『每日申報』, 1915. 8. 14. 1면. 한편 그는 이 佛像에 대하여 답사한 지 10년이 흘러 정식논문을 발표하였다. 黑板勝美, 「三國時代朝鮮に於ける唯一の金銅佛」, 『考古學雜誌』, 15-6, 1925. 논의에 있어서 진전되거나 달라진 부분은 없다.

37) 黑板勝美, 「大同江附近의 史蹟」, 『朝鮮彙報』 1916. 11. 朝鮮總督府, p.5.

38) 黑板勝美, 「南鮮史蹟의 踏査」(9), 『每日申報』, 1915. 8. 10. 1면.

39) 朝鮮總督府 編著, 『大正5年度 朝鮮古蹟調査報告』, p.17.

40) 黑板勝美, 「大同江附近의 史蹟」, 『朝鮮彙報』 1916. 11. 朝鮮總督府, pp.5~6.

41) 黑板勝美, 위의 논문, pp.6~9.

42) 黑板勝美, 위의 논문, p.11.

43) 黑板勝美, 『國史의 研究 - 總說의 部』, 1918, 文會堂書店, p.279.; 黑板勝美, 『國史의 研究 - 各說의 部』, 1918, 文會堂書店, pp.97~99.

그는 일본사의 시작을 神武天皇에 두는 것에 반대했다. 그는 記紀의 신화를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 대담한 것이지만 신화와 전설을 어떤 시대에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은 獨斷일 뿐이며, 오히려 긴 세월동안 형성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현상이 신화나 전설이 되어 후세에 전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⁴⁴⁾ 그래서 考古學을 필두로 比較神話學, 土俗學 등의 학과가 발달하면 記紀 神代卷의 神話を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렇게 될 때 역사의 출발점 역시 거슬러 올라갈 것이라고 하며 일본사의 기원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았다.⁴⁵⁾ 또 한일의 교섭이 있는 후에도 日本書紀의 紀年을 신뢰할 수 없고, 素戔鳴尊이 한일을 왕래했다는 신화는 出雲民族의 신화에 素戔鳴尊을 附會한 것으로, 이는 出雲지역과 한국의 관계가 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만 양자가 동일국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하며 記紀에 근거한 日鮮同祖論을 반대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는 日鮮同祖論의 입장에서 서술된 『國史眼』, 久米武邦이나 竹越与三郎 등의 日鮮同祖論은 史實의 고증이 불충분하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독단으로⁴⁶⁾ (久米武邦과 같이) 兩國(韓日)이 하나가 되어 살았다 등은 승인할 수 없는 것⁴⁷⁾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고대 한일의 관계에 대해서는 1910년 단계와 마찬가지로 '日韓文明同域論'을 심화한다. 그에 따르면 한국측에서는 曾戶茂利, 일본측은 出雲지역, 九州 북부의 어떤 곳, 이렇게 3곳에 중심점이 있는,⁴⁸⁾ '同祖'가 아닌 '同域'임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선주민족을 정복한 天孫民族의 강림지로 알려진 高天原의 위치에 대해 '海外說이 점점 짝을 띄워 朝鮮說, 南洋說 등 다양한 說이 있지만 아직 결정할 수 없다'⁴⁹⁾면서 일본사의 공간적 확대가능성과 여러 인종들을 통합한 天孫民族의 도래지가 한국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記紀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당시 黑板勝美에게 記紀는 완전한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인접학문의 발전에 따라 역사적 사실로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1918년 당시로서는 '未定の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記紀를 있는 그대로 사실로 보거나 아니면 완전히 後代의 산물로 보던 두 가지 입장에 모두 선을 긋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記紀를 통하여 日鮮同祖論을 주장 혹은 반대하는 태도 모두 거부 대상이다. 일본사의 중핵을 이루는 天孫民族이 강림한 때와 장소는 記紀의 내용이 인접학문에 의해 역사적 사실로 밝혀질 때 확실해 질 문제였다. 그렇게 될 때 일본사의 시작은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고, 천손민족의 강림지가 한국으로 확인될 때 일본사의 공간 역시 확장할 것이며, 日鮮同祖論 역시 명확해질 문제인 것이다. 그 이전에는 任那日本府에 대한 믿음과 한일 양국의 문화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文明同域說을 주장할 뿐이었다.

태고 한일의 관계에 대한 黑板勝美의 이러한 생각은 1921년 자신의 답사 결과와 한국사에 대한 지식을 아울러 서술한 「朝鮮의 歴史的觀察」에서 명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들의 祖先은 朝鮮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朝鮮半島로부터 驅逐되어 此島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數詞가 일본 특유의 것이라면) 日本에 우리들의 祖先이 들어온 것은 아주 오래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지만, 나는 그 결론과 동시에 만약 朝鮮방면으로부터 우리들의 祖先이 건너왔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아마 驅逐된 民族이라고 생각된다....馬韓, 弁韓, 辰韓이라고 하는 것은 北方의 勢力이 강할 때는 매우 愉快한 생활을 南朝鮮에서 지속할 수 있었다....이 運命은 결코 길지 않았

44) 黑板勝美, 『國史の研究 - 各說の部』, 1918, pp.2~11.

45) 黑板勝美, 『國史の研究 - 總說の部』, 1918, p.259.

46) 黑板勝美, 『國史の研究 - 總說の部』, 1918, p.7.; 黑板勝美, 『國史の研究 - 各說の部』, 1918, p.8.

47) 黑板勝美, 『國史の研究 - 各說の部』, 1918, p.26.

48) 黑板勝美, 『國史の研究 - 總說の部』, 1918, pp.270~271.

49) 黑板勝美, 『國史の研究 - 總說の部』, 1918, pp.273~274.

다...支那勢力이 朝鮮에 들어온 것은 箕子라는 사람이 平壤에 都한 것이 朝鮮 歷史의 시작...平壤의 남방에는 支那式 古墳이 많이 나온다...支那에서 발견된 瓦나 무언가가 평양부근에서 발견된다...支那의 勢力이 平壤을 중심으로 大同江流域 즉 平安南道에서 黃海道를 중심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근에 살던 자들은 모두 驅逐되었다...이것이 아마 朝鮮에서 3國이 일어난 하나의 이유이다...3개의 국가 이외에 일본과 가장 관계가 깊은 장소는 약한 국가였다...大加羅이다...이것도 魏志 東夷傳에 있다...日本은 政治적으로 朝鮮에 관계하여 大加羅를 구하기 위해 정치적 간섭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우리 日本은 南朝鮮의 일부를 保護國으로 하여 朝鮮 내부의 평화를 도모하였다.⁵⁰⁾(강조는 필자)

그는 여기서 이전의 입장에서 一躍하여 일본인의 先祖는 한국에서 驅逐된 이들이라고 단언한다. 즉 중국세력의 한국유입으로 인해 촉발된 민족이동으로 인해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일본인의 先祖가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 韓日양국 數詞를 비교하여 日本數詞의 독특성을 밝혀 日鮮同祖論을 반대한 白鳥庫吉의 연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한일의 관계를 유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추정의 근거는 자신의 2차 답사로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2차 답사 후 대동강 일대에 중국세력이 유입되어 한국사가 시작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이후 민족 이동과 3국의 성립과 일본으로의 이동을 설정하고 있다. 반면 1차 답사의 결과 어떠한 단서도 발견하지 못한 日本府에 대해서는 답사에 대한 언급없이 ‘魏志 東夷傳’에 근거해 ‘保護國’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黑板勝美의 태도는 記紀의 신화도 엄정한 사료비판과 다른 분과학문의 도움을 통할 때 사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전개된 日鮮同祖論 - 記紀에 근거한 日鮮同祖論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그는 한국은 남과 북으로 구분된다는 전제 하에서 답사를 통하여 남에서는 日本府를, 북에서는 중국의 유적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중국세력의 유입으로 인한 연쇄적인 민족이동을 설정하여 한일의 인종적 근친성을 논의하면서 어떠한 유물도 발견하지 못한 日本府에 대한 신념을 - 유물이 아닌 - 문헌을 통해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2) ‘日鮮同祖論’의 시기적 확장

학무국 편집과 주도의 답사에서 가장 먼저 囑託으로 임명되어, 가장 긴 기간 동안 거의 한국의 전지역을 답사한 것이 鳥居龍藏이었다. 그는 人類學·考古學 등의 지식에 기반하여 일본인종론을 전개하여 이전 記紀 중심의 일본인종론 연구를 질적으로 진전시킨 인물로 평가받으며,⁵¹⁾ 1913년 일본 인류학의 선구자이자 스승인 坪井正五郎이 죽자, 뒤를 이어 東京帝大에서 인류학강좌를 담당할 인물이다. 그가 총독부 촉탁으로 임명될 당시 동경제국대학 이과대학 강사였으며, 1910년대에 집중적으로 한국의 각지를 답사했다. 답사의 시기와 지역은 아래와 같다.

鳥居龍藏은 답사 이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1회 답사 후 보고서를 학무과에 제출하였지만 그곳에서 분실하였기 때문에 이후 답사보고를 하는 것을 꺼렸었기 때문이다.⁵²⁾

회고록을 통해 보았을 때 특히 鳥居龍藏은 5회 답사 당시 대동강 일대의 고분군에 대해 당시 일본 학계의 통설이었던 ‘高句麗 墳墓說’을 부정하고 ‘樂浪郡說’을 주장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한다. 그는 이미 1910년

50) 黑板勝美, 『朝鮮의 歷史的觀察』, 『朝鮮』 78, 1921. 8. 朝鮮總督府, pp.53~59.

51) 金光林, 앞의 논문, p.77.

52) 鳥居龍藏, 『ある老學徒の手記』, 朝日新聞社, 1953, p.174. 한편 그는 5회 답사보고서만은 제출했다고 하지만 발견되지는 않는다. 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2회보고서는 발견된다. 그렇지만 2회 답사는 주로 滿洲 吉林省의 海龍縣, 輯安縣이었으며 한국 지역으로는 楚山만이 포함된다.

<鳥居龍藏의 조선 답사>

| 회차 | 일시 | 답사지 | 수행원 |
|----|---------|---|------------|
| 1 | 1911년 봄 | 함경남북도 (청진, 성진, 두만강변, 渾春, 雄基灣) | 井上達三, 黑岩英次 |
| 2 | 1912년 봄 | 북만주, 평안북도 (만주 海龍縣, 楚山, 輯安縣) | 佐藤醇吉, 澤俊一 |
| 3 | 1913년 봄 |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다도해 및 제주도 (김해패총) | 澤俊一 |
| 4 | 1914년 |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부여) | 澤俊一 |
| 5 | 1915년 | 황해도, 평안남도, 경상남북도의 미답사 지역, 울릉도 (대동강 부근, 몽금포, 경주, 부산) | 澤俊一 |
| 6 | 1916년 | 평안남도, 황해도 일대 및 경기도 開城, 廣州, 楊平, 加平 | 澤俊一 |

※이 표는 鳥居龍藏의 회고록인 『ある老學徒の手記』(朝日新聞社, 1953)와 朝鮮總督府編著, 『大正5年度 朝鮮古蹟踏査報告』에 의거해 작성하였다. 1~5차 답사는 학무국 촉탁으로, 6차 답사는 古蹟調査委員으로 진행한 것으로 답사보고서는 2, 6차가 남아있다. 한편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6차 답사지는 평안북도와 압록강, 부산으로 되어 있지만, 총독부에서 펴낸 답사보고서에는 위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또 회고록에는 1916년의 답사가 古蹟調査委員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은 채, 학무국 촉탁이 되어 1911년부터 답사를 진행했다고 하며 6차례의 답사를 기술하고 있다. 古蹟調査委員會가 결성되어 鳥居龍藏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 1916년 5월이며, 6차 답사를 시작한 것이 1916년 9월 28일이기 때문에 5월 이전 학무국 촉탁으로서 한차례 더 답사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불확실하다.

2월에도 대동강 유역의 고분을 樂浪郡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학계의 강한 비난을 산 적이 있다. 그런데 한 해전인 1909년 건축학자로서 먼저 한국을 답사하였던 關野貞은 高句麗의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당시 今西龍과 같은 이들 역시 高句麗說을 지지하고 있었다.⁵³⁾ 이러한 鳥居의 주장은 앞서 살펴본 黑板勝美의 답사에도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살펴볼 今西龍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今西龍에 대해서는 후술)

한편 鳥居龍藏이 답사에서 주력한 분야는 석기시대 유적과 한국인의 생체측정이었다. 그는 1회 답사에서 석기유물을 발견하고 ‘朝鮮의 石器는 磨製石斧가 많았고....朝鮮에 石器時代가 확실히 존재했음을 알았고 일찍 八木씨가 말했던 ‘朝鮮에 石器時代의 遺跡은 없다’는 의견은 취소되지 않으면 않된다’고 술회한다.⁵⁴⁾ 1회 답사에서 石器時代의 유물을 발견한 이후 그는 한국의 거의 전지역에서 磨製石器 유물을 확인한다. 특히 그는 3, 4회 답사를 통하여 한국 남부의 토기는 일본의 繩紋式 시대 유물과는 다른 반면 彌生式 土器와 비슷하며, 양자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⁵⁵⁾ 또 3, 5회 답사에서는 고인돌을 발견하고 이를 원시적인 형태인 A 식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B 식으로 구분하고 ‘김해 부근 일대부터 南海諸島에는 A 式 돌멘이 많고 이는 대구부근까지 미친다. 이로부터 고찰해보면 조선의 전라북도, 경상남북도의 돌멘은 A 式 原始的인 것이고 그 이북의 돌멘은 B 式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상 그가 답사를 통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①평안도 지역에 한사군 중 하나인 낙랑군이 존재했다. ②한편 한국은 석기시대가 존재했는데, 이는 고인돌의 분포로 보아 남과 북은 계통이 다르며, ③주로 발견되는 磨製石器는 일본의 彌生式 시대의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鳥居龍藏이 비록 답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의 답사 결과가 당시에 전혀 공개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는 1915년 8월말에서 9월 초에 걸쳐 朝鮮總督府의 기관지라 할 수 있는 『每日申報』에 4, 5회

53) 鳥居龍藏, 위의 책, p.170.; 林直樹, 「今西龍と朝鮮考古學」, 『靑丘學術論集』 14, pp.60~61. 한편 關野貞 역시 늦어도 1914년 이면 대동강 유역 고분에 대한 자신의 ‘고구려분묘설’을 폐기하고 ‘낙랑군설’을 주장하며, 이후 이 지역의 답사주도권을 획득했다고 한다.(정인성, 앞의 논문, pp.147~151.)

54) 鳥居龍藏, 위의 책, pp.155~156. 한편 八木英三郎 역시 1901년 한국을 답사하면서 자신이 제기한 석기시대 부채론을 폐기하고, 일본은 타제석기, 한국은 마제석기라는 석기계통론을 설정한다고 한다.

55) 鳥居龍藏, 위의 책, p.166.

답사에 대한 글을 신는다. 여기서 그는 강원도 지방으로는 북방민족의 이입이 많았으며, 강원도 이남 경상도 지방까지는 對馬島를 거쳐 일본지방의 민족과 교섭이 적지 않았다고 본다.⁵⁶⁾ 그는 또 言語, 風俗, 巫女와 같은 샤머니즘을 통해 滿洲, 蒙古, 日本, 中國 등지와 한국의 관련성을 서술한다.⁵⁷⁾ 한편 ‘반도’ 전체에 걸쳐 滿洲와 蒙古지역과 비슷한 석기시대의 유물이 발견되는 것을 들며 한국에 있었던 가장 오래된 민족은 석기를 사용한 민족이라고 하며 북방과 한국의 관련성이 오래되었음을 시사한다.⁵⁸⁾ 그렇지만 그는 南鮮지역의 민족을 X 민족이라고 명명하고, 이들은 체격면에서 北鮮人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한국의 인종을 북부아시아형과 남부의 인종으로 나누고, 남부 인종(X 민족)의 근거지로서 일본을 상정한다. 그가 남부의 인종과 일본을 연결시키는 이유는 한국과 일본의 연결지인 對馬島에서 한국과 일본 양지역과 동일한 石器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⁵⁹⁾ 그는 이와 같이 조선과 滿洲, 蒙古지역의 관련성을 제시하면서도 석기 유물을 강조하며 한국 남부와 일본의 연관성을 주장한다.

鳥居龍藏은 한국에서 발굴된 석기시대 유물의 조사와 연구에 있어 독점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⁶⁰⁾ 그의 이러한 면은 日鮮同祖論을 주장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점 이전 많은 국사학자들이 日鮮同祖論을 주장하며 강조한 素戔鳴尊에 대한 견해에서 극명히 나타난다.

日本과 朝鮮의 關係를 說하는 人の 多數는 三韓時代나 新羅時代로써 함과 如하나 余의 研究한 結果에 依하면 此 日鮮兩國의 關係라함은 決코 右等の 時代가 안이오 더욱 少히 其古代인줄로 思하노라. 日鮮의 關係는 石器時代로부터 存하였다고 하노니...現今에 内地中國地方에서 發掘된 石器時代의 遺物은 殆히 朝鮮에 在한 同期의 것과 同一한지라...當時의 石器使用者는...朝鮮으로부터 日本으로 渡한 者라고 思하노라.. 然則 彼 素戔鳴尊의 曾戶茂利(소시모리 - 필자)로써 上下 日鮮間의 聯絡을 繁할 必要도 無케되야 學術上에 크게 密接한 關係를 認得할 者이로다.⁶¹⁾(강조는 필자)

이상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1915년, 이미 그는 한국에서 발굴된 석기(磨製石器)에 대한 강조를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의 관련성을 논하며 최초의 일로 꼽는 素戔鳴尊의 시대보다도 더 오래된 것임을 磨製石器의 유사성을 통해 주장하고 있었다.⁶²⁾ 그의 이러한 연구는 문헌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유물·유적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보다 ‘객관적’ 사실로 비추어 졌을 것이다.

鳥居龍藏의 이러한 태도는 이후 1920년대에 접어들어 보다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20년 12월 「有史以前의 日韓關係」라는 글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그는 1915년 단계와 마찬가지로 석기유물의 존재를 통해 한일 양민족의 유사성이 역사 이전의 시대부터임을 강조한다. 그는 여기서 석기시대를 ‘有史以前의 시대’라고 명명하고, 석기를 사용한 민족이 한국에 최초로 거주한 민족이며 이는 檀君傳說보다도 중요한 ‘實證의 事實’이라고 강조한다. 또 일본의 민족에 대해서도 당시 일본학계의 주류견해인 아이누 선주민족설⁶³⁾을 부정하고,

56) 鳥居龍藏, 「日鮮蒙民族關係」, 『每日申報』, 1915. 8. 28. 1면.

57) 鳥居龍藏, 「X民族의 出處」, 『每日申報』, 1915. 8. 31. 1면.

58) 鳥居龍藏, 「朝鮮民族에 取하여」(2), 『每日申報』, 1915. 9. 4. 1면.

59) 鳥居龍藏, 「朝鮮民族에 取하여」(3), 『每日申報』, 1915. 9. 5. 1면.

60) 宮里修, 「戰前の朝鮮における石器時代の調査研究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42, 2004.

61) 鳥居龍藏, 「朝鮮民族에 取하여」(3), 『每日申報』1915. 9. 5. 1면.

62) 鳥居龍藏은 조선에서 발굴된 石器時代의 발굴을 독점하면서 한국의 石器時代像(마제석기 중심의 像)을 구축했으며, 이는 일본의 석기시대 논의와 연동된다고 한다.(宮里修, 앞의 논문 참고.)

63) 석기를 사용하는 아이누 민족이 일본열도에 먼저 살고 있었는데 이후 금속을 사용하는 天孫民族이 열도에 도래해 와서 아이누를 정복하였으며 현재의 일본민족의 기원이 된다는 것.

일본의 석기유물도 아이누의 것과 일본민족의 기원이 되는 이들의 석기 2種이 있다고 하며 ‘日韓兩民族의 關係는 石器時代부터 研究’ 할 것과 ‘日本内地와 朝鮮은 有史以前 當時부터 같은 民族的 色彩가 있었다’고 결론 지으며 역사시대 이전부터 시작된 韓日양인종의 유구한 관계를 주장한다.⁶⁴⁾ 또 1923년에 발표한 「有史以前에 있어 朝鮮과 그 周圍의 關係」에서도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素戔鳴尊 이전부터 있었던 것임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시각을 보다 명확히 한다.

그는 우선 한국에서 출토된 石器時代 유물의 특성으로 磨製라는 점을 들고, 이는 滿洲도 마찬가지라고 하며, ‘조선의 연구에는 만주나 요동의 연구로부터 수행하지 않으면 않된다’며 시야를 만주지역까지 확대하고 있다.⁶⁵⁾ 이후 그는 한국에서 발견된 土器를 두께, 구성성분, 把手, 무늬에 따라 서해안 일대(경기도부터 황해도 평안도까지, 충청남도 해안가부터 평안북도 압록강 하구까지)에서 발견된 A 형과 전라남도과 전라북도 경상남도에서 발굴되는 B 형으로 대별한 후 ‘B가 일본의 彌生式이 된 것이다. B는 만주의 奧地에 널리 있다. 당시 인간은 어떠한 생활을 했는가 하면 이것 역시 일본과 비슷했을.’⁶⁶⁾ 것이기 때문에 ‘조선의 석기시대는 한편으로는 일본 전도와 관계가 있고 한편으로는 만주에도 관계가 있는 것’⁶⁷⁾이라고 하며 한국에서 출토된 석기를 매개로 하여 만주와 일본의 관련성까지도 암시한다. 이렇게 시야를 만주까지 확대한 이후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日本人의 祖先은 지금까지 생각했듯이 農業金屬器時代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石器를 사용할 때에 들어왔다....日本이 石器를 사용할 때는 朝鮮으로부터 온 것이다. 朝鮮과 매우 깊은 關係가 있었고....日本은 어떠한가 말하면 아이누가 있었지만 朝鮮에는 아이누의 遺蹟이 발견되지 않는다. 日本에서 우리들 祖先의 遺蹟을 보면 朝鮮의 것과 동일하고, 둘은 분명 합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것을 가지고 大和地方, 出雲地方에서 나온 石器와 比較하면 區別이 어렵다. 이것이 交通의 結果인가 또는 民族的으로 같은 것인가, 交通의 結果라고 하기에는 어렵다.⁶⁸⁾(강조는 필자)

즉 그는 여러 차례의 답사를 통하여 191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서의 石器時代 遺物(磨製石器)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의 관계가 記紀에서 말하는 素戔鳴尊 이전, 역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남부지역 - 특히 전라도, 경상도 지역 - 과 일본 彌生式 土器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이는 交通의 결과가 아니라 일본의 先祖에 해당하는 민족이 磨製石器를 사용하던 시대부터 한국을 통해 들어왔다는 것이다.

3) ‘任那日本府’의 의미 축소와 ‘日韓族’

강점을 계기로 하여 일선동조론은 복권된다. 그렇지만 이제 살펴 볼 今西龍은 강점 당시 日鮮同祖論에 대하여 그다지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강점과 동시에 「檀君說話에 대하여」를 발표하는데 글의 집필 이유를 ‘지금 半島는 併合되어 日韓上代同說을 주장하는 자가 날로 늘어간다. 이러한 형세로 나아가면 이후 同域論의 應用도 행해져 수년전 合祀論의 재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에 檀君에 대

64) 鳥居龍藏, 「有史以前の日韓關係」, 『同源』 3, p.43, 1920. 12, 同源社.
 65) 鳥居龍藏, 「有史以前に於ける朝鮮と其の周圍の關係」, 『朝鮮』 101, pp.15~25, 朝鮮總督府, 1923. 9.
 66) 鳥居龍藏, 위의 논문, p.17.
 67) 鳥居龍藏, 위의 논문, p.26.
 68) 鳥居龍藏, 위의 논문, pp.26~28.

한 小生の 說을 실는 것도 無效한 것은 아니다⁶⁹⁾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강점 직전인 1909년 記紀新화에 근거한 日鮮同祖論을 바탕으로 일본의 신격과 단군을 합사하려던 움직임⁷⁰⁾을 경계하며, 자신은 이러한 류의 日鮮同祖論에 반대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今西龍은 강점 이전부터 한국을 답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1906년에 東京帝國大學의 주관으로 혈혈단신으로 경주지역을, 이후 1907년에는 金海貝塚를, 1909년에는 평양부근을 답사하고 몇 편의 글을 발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답사에 대하여 스승인 坪井九馬三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관심을 文獻史學으로 돌린다. 그렇지만 그의 답사는 文科 관련 학자로서는 최초의 답사였을 뿐만이 아니라 경주지역에서 작은 磨製石斧를 수습하기도 하였다.⁷¹⁾ 학무국 편집과장이었던 小田省吾와의 친분(이 둘은 東京帝國大學 史學科에서 같은 시기에 修學하였다)과 더불어 이러한 경력은 그가 학무국 촉탁이나 고적조사위원으로 답사를 하게 되는 데에 중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는 1913년, 1916년과 1917년에 한국을 답사한다.

< 今西龍 의 조선 답사 >

| 회차 | 일시 | 답사지 |
|----|-----------------|--------------------------------------|
| 1 | 1913년 9월 | 대동강 유역의 土城 |
| 2 | 1916년 | 서울의 북한산비와 개성의 고려분묘 |
| 3 | 1917년 9월부터 5개월간 | 善山, 達成, 高靈, 星州, 金泉, 咸安, 昌寧 등의 古墳과 山城 |

※ 1차 답사는 학무국 촉탁으로, 2, 3차 답사는 아닌 古蹟調査委員으로 답사한 것이다. 1차 답사에 대한 답사보고서는 남아 있지 않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특히 1, 3차의 답사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今西龍은 대동강 유역의 고분에 대해 高句麗 墳墓說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1910년 東京帝大列品室에서 이 지역에서 나온 유물을 본 후 1912년 「大同江南의 古墳과 樂浪王氏의 關係」를 발표하여 樂浪郡說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수행된 대동강 유역의 土城답사에서 今西는 土城에서 나온 유물을 漢代의 瓦로 보고, 이를 樂浪郡의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다고 한다.⁷²⁾ 그가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는 데에는 鳥居龍藏의 주장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⁷³⁾ 3차 답사지는 주로 任那日本府와 관련된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이미 黑板勝美가 답사한 지역으로 任那日本府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한 지역이다. 이러한 사정은 今西龍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답사 이후 실측한 유물에 대한 기록과 사진을 제공하였으며, 「任那에 관하여」라는 강연을 한다. 여기서 그는 ‘任那’라는 명칭이 加耶를 일컫는 것임을 논증하고 고대 일본의 한국 남부 지배의 내력을 서술한다. 그에 따르면 雄略天皇이래 일본의 세력은 약화되어 欽明天皇을 거쳐 天智天皇에 이르면 그 세력을 잃고 회복하려던 시기이다.⁷⁴⁾ 그렇다면 당시 일본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지역을 지배했던 것인가.

69) 今西龍, 위의 논문, pp.225~230.

70) 이에 대해서는 최광식, 「神宮建築地의 내용 및 의의」, 『단군학연구』 3, 2000을 참고할 것.

71) 林直樹, 「今西龍と朝鮮考古學」, 『靑丘學術論集』 14, pp.53~55, 1999. 林은 여기서 今西龍은 文獻史學者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後年の 학풍이며, 학문에 발을 들여 놓은 초년인 東京帝國大學 시절에는 Field work 을 기본으로 연구하였으며, 이것이 今西龍 청장년기 학문의 특징으로 꼽고 있다.

72) 林直樹, 위의 논문, pp.61~62.

73) 鳥居龍藏이 1910년 초 史學雜誌 列席會議에서 처음 낙랑군설을 제기했을 당시 ‘무례한 것’으로 평가받고, 회의록에서도 鳥居의 발언은 삭제되었을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을 당시 東京帝大에 있던 今西龍이 모르고 있었을 리는 없다. 또 정인성은 역시 사학자 출신인 今西龍이 발굴 당시에 ‘王’字가 새겨진 명문을 발견하지 못했을 리 없으며, 今西의 이러한 논의 변화는 鳥居龍藏의 논의에 영향을 받은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정인성, 앞의 논문, p.147.)

74) 今西龍, 「任那に就て」, 『朝鮮叢報』 1918. 2, pp.46~53.

日本은 任那를 어떻게 經營했을까....단지 貢物을 取하면 좋다는 주의였고, 그 年貢取立의 代官이라는 것이 任那諸國 두고 있었다. 歴史에 日本府라고 씌어 있는 것은 즉 年貢取立의 代官인 것이다....(당시 일본의 정치적 수준은 낮았기 때문에 : 필자) 任那에 限하여 日本府라는 것을 돌리가 없다....日本府와 같은 명칭은 後代에 이르러 나타난 것이 틀림없다....무슨무슨 府라고 하는 官制를 설치하고 많은 兵隊를 가지고 加羅諸國 내에 城을 쌓았던 것은 아니다. 어떤 국가에서도 國王이 政治를 하고 있는데 이와 나란히 그 한편에서 많은 兵隊를 가진 日本府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常識에서 생각해 보아도 想像하기 어렵다....그렇기 때문에 咸安의 城跡을 日本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⁷⁵⁾(강조는 필자)

記紀에 대한 엄정한 비판의 자세를 취하는 분위기에서 수확한 今西龍이 낙동강 일대 지역에서는 任那日本府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유적이거나 유물이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任那日本府에 대해 나름대로의 내린 답이 위의 인용문으로 보인다. 즉 다른 학자들처럼 日本府를 한국통치를 위한 ‘權力體’ 혹은 日本府를 통해 한국을 일본의 ‘保護國’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年貢을 받는 것이었으며, 이를 후대에 ‘日本府’라고 표기했다고 하며 任那日本府의 존재를 인정하는 선에서 그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강연을 한 다음해인 1919년 그는 가야와 관련하여 논문 「加羅疆域考」를 발표한다. 이 글에서 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任那라는 명칭에 대한 논증에서 시작하여 김해에는 금관가야가, 고령에는 대가야가 있었으며, 김해의 가야가 멸망한 후 30년 후에 고령가야가 멸망했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가야국들의 위치를 비정하고 있다. 그는 이 글에서 日本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任那官家’라는 것은 雄略紀 20年條에 百濟國者日本國之官家の 官家와 마찬가지로 附屬國의 뜻이 아닐까⁷⁶⁾ 할 뿐, 그 이상의 논증은 하지 않는다. 또한 답사와 관련된 것은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三國史記, 三國遺事, 記紀 그리고 중국의 고문헌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그가 이렇게 문헌에 몰두하게 된 것은 답사지에서 日本府와 관련된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지역을 답사한 黑板勝美도 관련유물을 찾지 못한 채 日本府의 존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만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문헌 - 魏志 東夷傳 - 을 탈출구로 삼았다. 이러한 사정은 今西龍 역시 마찬가지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답사 후 今西龍은 더 이상의 답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철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한다.⁷⁷⁾

한편 앞서 언급하였듯이 今西龍은 강점 당시 檀君과 일본의 신격을 동일시하는 움직임에 경계하였으며, 日鮮同祖論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한국에 직접 와 답사와 연구활동을 전개하며 어느 정도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1918년에 발표한 「任那에 관하여」의 말미에서 답사의 결과를 언급하며 ‘洛東江流域의 古物은 (일본의 유물과) 매우 유사하다. 둘을 섞어 놓는다면 약간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려낼 수 있는 정도이지만 대체에 있어서는 同一하다....민족이 같았기 때문에 동일한 것인가, 다른 곳에서 영향을 받아 동일한 것인가, 甲에서 乙로 이동한 것인가, 乙에서 甲으로 이동한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⁷⁸⁾며 한일의 민족적 동질성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다. 민족적으로 같은 것인가라고 자문해 보는 것은 日鮮同祖論의 수용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그가 문헌의 연구에 몰두한 1920년대 이후 분명해 진 것으로 보인다. 今西龍은 한국사를 전공하여 文學博士學位를 취득하며, 1926년 京城帝國大學學部가 개설된 이래 法文學部 教授로 부임한다. 부임

75) 今西龍, 위의 논문, pp.60~62.

76) 今西龍, 「加羅疆域考」, 『史林』, 4-4, p.39.

77) 今西龍이 고고학과 결별한 것에 대해서 李進熙는 任那日本府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李進熙, 『廣開土王碑と七支刀』, 學生社, 1980.)

78) 今西龍, 「任那に就て」, 『朝鮮叢報』 1918. 2, p.65.

후 그는 檀君 부정의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는 「檀君考」를 발표한다.⁷⁹⁾ 그는 여기서 ‘檀君傳說’을 역사적 형성물로 보고, 그 ‘發展의 沿革’을 추적하고 있다. 그는 단군에 대한 여러 가지 전승들을 몇 가지로 유형화하며 이는 절대로 韓民族과 관련될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고구려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이들(檀君과 관련된 전승들 - 필자)에게서 공통되는 것은 그 지방이 고구려의 舊地였던 지방이고, 그 관계도 通古斯族(통구스족 : 필자)인 扶餘種族에 관계하고 있으며, 현대 조선민족의 선조인 韓種族에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전설에서 주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시아 북방대륙민속에 공통인 始祖神人이 神獸交婚의生子라는 일이며, 人獸交婚은 日本民族에 있어서는 國內에 그것을 범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天神地祇의 激怒로 國土에 재해가 오게 된다. 韓民族도 日本民族과 같은 사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人種學上에서 보아도 양자는 북방몽골종의 가운데에 있어서, 日韓族(Koreo-Japanese groups)을 이루고 扶餘種·女眞 등 소위 통구스종을 이루는 것과 대립하여, 신화전설에 비추어 보아도 韓民族의 神人은 혹은 天에서 내려오고 淨地에서 나오는 등 일본의 것과 유사하다는 것에 의해서 알 수 있다.⁸⁰⁾ (강조는 필자)

이 인용문은 길지는 않지만 많은 것을 알려준다. 우선 그는 ‘檀君傳說’을 고구려와 연관 지어 북방민족의 것으로 전제한다. 그러나 今西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인간(혹은 신)과 동물이 交婚을 하여 聖子を 낳는다는 것은 北方 통구스족과 관련된 것으로 일본과 한국의 민족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에 이른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그가 인류학을 참고하며 한국과 일본을 하나의 종족인 ‘日韓族’으로 묶고, 이 종족은 통구스족과는 대립한다고 하며 신화상으로도 韓民族과 日本民族의 유사성을 꼽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今西龍은 인종학, 비교신화학과 같은 다른 분과학문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記紀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와는 별개로 다른 분과학문을 수용하여 檀君과 韓民族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도 한일의 인종을 하나로 아울러왔다. 대동강 유역의 유물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낙랑군설’로 수정할 정도의 고고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었던 今西龍은 인류학과 같은 다른 분과학문을 받아들이기 용이했을 것이다.

그가 이렇게 한일을 인종적으로 묶어 사고하게 된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강점 이후 활발히 진행된 답사가 아닐까 한다. 今西龍은 이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지만 같은 시기 한국에 와 今西와 비슷한 궤적을 보이는 다른 학자의 글에서 이러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半島의 北部와 南部는 沿革上 완전히 별개의 徑路를 취하며 각각 출발점을 달리하고, 또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즉 北部는 支那의 영향을 받은 것이甚하여 活動主體의 다수는 北方으로부터 半島로 移住했던 漢族 또는 滿洲族이다. 南部는 이에 반해 크게 日本의 영향을 입었으며, 活動의 主體는 오로지 半島에 原住한 韓族이다....古史에 南鮮地方의 住民으로서 드러나는 韓族이라는 것은 즉 石器時代의 住民으로부터 發達한 것이다....또 그 文化와 人種이 内地의 九州와 아울러 關西地方에 있는 遺跡에서 보이는 바와 極히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中鮮·北鮮의 古代住民에 관해서는 이들과 南鮮地方住民

79) 今西龍에 따르면 ‘檀君考’를 1920년에 저술하였지만 유학과 경성제국대학으로의 부임으로 분주하여 발표하지 못하다가 ‘近來의 風聞’이 공표를 필요로 하여 조금 손을 보아 1929년에 발표했다고 한다. ‘近來의 風聞’이란 당시 최남선을 필두로 조선인이 수행한 檀君에 대한 연구로 보인다.

80) 今西龍, 「檀君考」, 『靑丘學叢』 1, 1929, pp.22~23.

또 滿洲住民과의 관계를 斷言하기에는 資料가 아직 부족함을 깨닫는다....(朝鮮總督府 大正5年 및 大正9年 古蹟調査報告에 근거한다.)⁸¹⁾(강조는 필자)

한국 남과 북의 인종적 상이성과 남부지방과 일본 九州·關西地方 유적의 유사성을 통하여 석기시대 이래 兩地의 관련성을 부각하고 있는 위의 인용문은 鳥居龍藏의 논의를 보는 듯하지만 今西龍의 수학동료이자 강점 후 學務局 編輯課長으로 부임한 小田省吾가 1927년에 발표한 것이다. 그가 밝히고 있듯이 이러한 결론은 강점 이후 진행된 조사사업 결과에 따른 것이다. 더군다나 그는 답사를 주관하는 위치였으며, 鳥居龍藏과 같은 이들의 조사결과를 누구보다도 빠르고 쉽게 접했을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처지는 今西龍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즉 今西龍은 任那日本府를 증명할 만한 유물이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그 의미를 ‘年貢’의 수취로 보며, 인접학문의 수용과 한국에 대한 답사를 통해 한일의 인종적 근친성을 ‘日韓族’으로 표현하기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4. 結語

지금까지 강점 이전 日鮮同祖論을 둘러싼 일본학계의 지형과 1910~20년대 일제 관학자의 논의를 黑板勝美, 鳥居龍藏, 今西龍 3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明治維新 이래 일본의 학자들은 일본인의 기원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혼합민족임을 주장하며 한국을 향해서 日鮮同祖論을 펼쳤다. 이는 記紀와 고대의 유적·유물을 바탕으로 전개되었으며, 고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위를 전제한 것이었다. 이러한 한편에서는 일본의 ‘독자성’을 주장하고 記紀의 사료적 가치를 재고하며, 日鮮同祖論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들 역시 任那日本府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강점 이후 조선총독부의 지원 하에 활발한 답사를 벌이게 된다. 1911년 학무국 편집과장으로 東京帝大에서 동양사를 전공한 小田省吾가 부임하고 교과서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이라는 명목으로 답사가 전개된 이래 1916년 古蹟調査委員會가 결성되며 한국에 대한 학술답사는 본격화 되었다. 학무국 편집과 주도의 답사부터 이후까지도 답사에 참여했던 이들이 바로 본고에서 살펴본 黑板勝美, 鳥居龍藏, 今西龍이었다.

黑板勝美는 記紀에 근거를 둔 日鮮同祖論을 거부하면서 日韓文明同域論을 제기한다. 그렇지만 그는 한국을 답사하고 중국 세력이 대동강 유역으로 유입됨에 따른 민족의 연쇄이동을 상정하며 일본의 조상은 한국에서 이동해 간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또 아무런 유적도 나오지 않은 任那日本府에 대해서는 중국사서인 魏志 東夷傳을 근거로 그 실재를 강변하였다.

鳥居龍藏은 1910년대 중반 이래 한국, 특히 남부 지역의 磨製石器와 일본의 彌生式 土器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記紀의 素戔鳴尊을 거슬러 올라 석기시대 이래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민족이동을 주장하며, 양지의 유물이 비슷한 것은 민족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그가 주장한 대동강 유적의 樂浪郡說은 黑板勝美, 今西龍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今西龍은 고고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대동강 유역 유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환하기도 한다. 또 낙동강 일대를 답사한 이후 任那日本府의 의미를 축소하여 설명하며, 낙동강 일대와 일본에서 발굴된 유물의 유사성을 언급하면서 두 지역을 하나로 아우르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후 檀君을 부정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81) 小田省吾, 『朝鮮史大系 上世史』, pp.1~8, 1927, 朝鮮史學會. 小田省吾 역시 今西龍과 마찬가지로 京城帝大 교수로 부임하였으며, 이 글을 발표하기 한 해전인 1926년에는 檀君은 고려시대 몽고의 침략을 받았을 당시 僧侶에 의해 만들어진 傳說이라 하며 檀君의 歷史性을 부정했다.(小田省吾, 『謂ゆる檀君傳說に就て』, 『文教の朝鮮』, 1926.)

민족을 하나로 포괄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가 이렇게 한일의 민족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었던 데에는 인류학, 비교신화학 등 다른 분과학문을 수용한 것과 수학동료이자 초기 답사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던 小田省吾처럼 당시의 답사결과를 참조한 것이 아닐까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보았을 때 인류학자와 국사학자들은 일선동조론을 지지한 반면 동양사학자들은 일선동조론에 반대하고 있었다는 이해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明治維新 이후 적어도 본고에서 다룬 1920년대까지 일본 역시 ‘근대 학문’의 분과체제는 오랜 역사를 지닌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히 자리잡은 것은 아니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식민지로 편입된 ‘朝鮮’의 위치는 ‘일본사’ 혹은 ‘동양사’와 같이 어느 한쪽에 위치시키기에는 모호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한국으로의 확장을 피하고 식민지로 영유하며 이를 역사를 통해 합리화하고자 했던 것은 일본인 학자들이 공유하던 태도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任那日本府는 - 그것이 한국에 가지고 있던 ‘權力’이든, 日本府를 통해 과거 한국이 ‘保護國’임을 보여주든, ‘年貢’을 받던 代官이든 - 분과학문이 무엇이든, 자신의 전공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았다. 이는 한일의 인종적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적어도 조선총독부의 관료나 囑託 혹은 20년대 京城帝大 교수 등으로 부임해 있던 일본인 학자들은 제국의 판도에 포섭된 ‘朝鮮’의 남부와 일본의 出雲, 九州 등지와와의 연관성, 민족적 동질성 등에 대해 - 그들의 전공한 분과학문과는 별개로 -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오히려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강점을 전후로 한 日鮮同祖論의 변화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3명의 학자들은 강점 이전 記紀에 근거하여 주장된 日鮮同祖論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다른 차원에서 한일의 인종적 근친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黑板의 경우 1918년 단계까지는 記紀에 근거한 선배학자들의 日鮮同祖論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자신을 日韓文明同域論者로 위치지운다. 또한 記紀에 대해 엄정한 사료비판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체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뚜렷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任那日本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시 한 것이 - 日本書紀가 아닌 - 魏志 東夷傳이 아니었을까 하며, 한일의 인종적 근친성을 記紀에 근거하지 않고 민족의 이동에서 구하고 있다. 鳥居의 경우 記紀에 대한 거부나 再考의 필요를 주장하지는 않지만, 記紀와 같은 기록이 아닌 석기유물에 대한 자신의 식견을 바탕으로 記紀의 素戔鳴尊을 거슬러 한일의 연관성을 주장한다. 이는 今西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역시 記紀를 근거로 일본의 신격과 단군을 동일시하는 움직임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고고학적 소양과 인접학문을 수용하면서 한일의 인종을 ‘日韓族’으로 아우른다. 이들이 이러한 공통점을 나타내는 것은 이들의 연령이 이전의 학자들에 비해 10년 이상 더러 이른바 ‘근대적 학계·학문’의 세레 속에서 성장하며 자료나 사료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시각을 갖추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강점 이후 전개된 이들 세대의 연구는 이전 보다 엄정한 사료비판과 실재하는 유물·유적을 근거로 하며, 이들이 구축한 한국의 역사상은 보다 ‘과학적’으로 비추어졌을 것이다.

한편 식민지 시기 일본인 학자들의 연구는 1920년대 후반부터 ‘滿鮮史’라는 틀 안에서 새롭게 조직된다.⁸²⁾ 이를 위해서는 북방민족과의 관련성 속에 한국사가 새롭게 자리매김 되어야 했을 것이며, 지금까지 살펴본 이들은 자신의 논의를 변형시키거나 강조점을 달리했을 것이다.

82) 최근 井上直樹의 「近代 日本の 高句麗史 研究 - ‘滿鮮史’·‘滿洲史’와 關聯해서」, 『高句麗研究』 18, 2004에서는 ‘滿鮮史’가 본격적으로 자리잡아가던 1920년대 후반 이후의 상황을 고구려사와 관련하여 해명하고 있다.